

부활절 여섯번째 / 어린이 주일  
THE WORSHIP SERVICE OF 6TH SUNDAY OF EASTER

주후 2024년 5월 5일 오전 10시  
인도: 김일선 목사

*입례 찬양 Opening Hymn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다같이
*예배로부름 Call to Worship		인도자
*찬 송 Hymn	566 장 “사랑의 하나님 귀하신 이름은” (통일 418)	다같이
*교 독 문 Responsive Reading	18 번 시편 31 편	다같이
*고백의기도 Prayer of Confession		다같이
*사죄의확신 Assurance of Pardon		인도자
*송 영 Gloria Patri	643 장 “세번 아멘” (통일 555)	다같이
*평화의인사 Peace Greeting		다같이
기 도 Prayer of Intercession		윤영록 장로
성경 봉독 Scripture Reading	요(John) 15:9-17, 요일(1 John) 5:1-6	고지현 집사
찬 양 Anthem	“사랑이 예 오셨네”	찬양대
설 교 Sermon	“ <b>이제부터는</b> (No Longer)	김일선 목사
결단의찬양 Commitment Hymn	“주 앞에 었드려”	다같이
신앙의고백 Affirmation of Faith		다같이
봉 헌 Offerings		다같이
*송 영 Doxology	317 장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통일 353) 1 절	다같이
*봉헌 기도 Offertory Prayer		다같이
교회 소식 Announcements		인도자
*파송 찬양 Closing Hymn	304 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통일 404)	다같이
*축 도 Benediction		김일선 목사

\*표에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Please stand if you are able.

고백의 기도

(자신의 죄를 침묵으로 고백한 후,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다같이: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더 높아지는 것에만 관심을 두었고,

어린 아이처럼 전적으로 주님만을 의지하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여, 이 죄인을 용서하십시오.**”

여전히 세상을 걸논질하며,

두 마음을 품었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진정 주님께 간구하오니,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거룩하심으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을 향한 첫 사랑과 믿음의 순수함으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 18:4)

오/늘/의/ 성/경/말/씀 TODAY'S SCRIPTURE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요 15:15)

“I no longer call you servants, because a servant does not know his master's business. Instead, I have called you friends, for everything that I learned from my Father I have made known to you.” (John 15:15)

매/일/성/경/읽/기 DAILY BIBLE READINGS

날짜	5/5 (주일)	5/6 (월)	5/7 (화)	5/8 (수)	5/9 (목)	5/10 (금)	5/11 (토)
	민14	민15	민16	민17,18	민19	민20	민21
본문	시50 사3,4 히11	시51 사5 히12	시52-54 사6 히13	시55 사7 약1	시56,57 사8:1-9:7 약2	시58,59 사9:8-10:4 약3	시60,61 사10:5-34 약4

수/요/ 찬/양/집/회

토/요/ 새/벽/기/도/회

수요 찬양집회 (5/8수 오후7:30)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마7:24-27)
토요 새벽기도회 (5/11토 오전6:30)	“우리가 이방 땅에서” (시137:1-9)

지난 주일(4/28) 말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 15:1-8, 요일 4:7-19)

일찍이 어거스틴(St. Augustine)은 “사랑에는 다른 사람을 도울 ‘손이 있어야 하고, 사랑에는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에게 달려갈 ‘발이 있어야 하며, 사랑에는 다른 사람의 한숨과 고통을 들어줄 ‘귀가 있어야 하다”라고 했습니다. 즉, 진정한 사랑은 말로만 그치지 않고, 반드시 행동과 희생이 뒤따른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요13:34-35)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인정하는 순간은 (바로)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을 닮은 사랑을 하느냐? 에 달려 있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일서 4장에서,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도 이와 동일합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받은 자들이기에,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며, 그래서 사랑하는 않으면, 도무지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참고, 요4:7-11). “하나님은 곧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 뿐만 아니라, 성경이 일관되게 전해주는 메시지입니다. 즉, 모든 것은 ‘사랑’에서 출발하여, 결국 ‘사랑’으로 마무리 되기 때문에, 우리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알되,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을 알며(참고, 엡3:14-19),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욱 충만하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도 사랑의 열매가 맺히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설/교/ 메/모